

펩트론, 당뇨병 치료제 임상2상 진행

펩트론이 당뇨병 치료제의 임상2상 시험을 진행한다.

바이오기업 펩트론은 유한양행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지속형 당뇨병 치료제 <YH14617(PT302)>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2상 진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11월2일 발표했다.

펩트론은 “<YH14617>이 하루 2회 주사해야 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1회 투여로 1-2주 동안 지속적인 혈당 개선과 체중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펩트론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일반인 36명을 대상으로 임상1상을 마쳤고 임상2상과 임상3상을 거쳐 2015년 상용화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11/11/03>